



엔비디아 주가 하락과 함께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코스피에도 위협 신호가 켜졌다. 코스피의 역대급 상승세와 더불어 위험 지표 또한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엔비디아 주가는 전장 대비 5.46% 하락한 184.89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엔비디아 주가뿐만 아니라 뉴욕증시 또한 하락했다.

S&P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4%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8%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0.04%에 그쳤다.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매출 681억2700만 달러를 기록해 11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시장 전망치(662억 달러)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톱 그래프 페이셋 최고투자책임자는 “엔비디아는 주가에 반영된 높은 기대감과

역대급 호실적에도 5.4% 하락 뉴욕 증시 휘청... 적신호 위기 숨죽인 코스피, 반도체株 주춤

회의적인 시장이라는 양면적 상황에 놓였다”며 “이를 고려하면 적어도 향후 몇 분기는 순탄하지 않은 시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은 이전부터 나왔다. AI 관련주가 유례 없이 오르며 시장에서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현재까지는 약간의 조정장을 거친 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며 일시적인 우려에 그쳤지만 상승장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꾸준히 나온다.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국내 시장에도 반영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 30분 21만

증권사 반대매매 비중 9배 ‘쑥’ 조정장 전환가능성 날로 커져 역대급 ‘빛투’ 개미 손실 초비상

8250원에 거래를 마쳤던 삼성전자 주가는 27일 오전 9시 21만 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종가 기준 109만7000원이었던 SK하이닉스 주가도 27일 105만 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주가가 천천히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른던 반도체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던 반도체주가 상승을 멈춘다면 코스피 상승세 또한 완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국판 ‘공포지수’로 꼽히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53.17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50을 넘으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매도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대차

거래잔고는 최근 150조 원대를 돌파했으며 투자자가 빌린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파는 강제 매매 금액 비중 또한 2.8%로 전년 동기 대비 9배 이상 올랐다.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 코스피 급등에 따른 조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빛을 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빛투’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 위험 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 하락이 현실화된다면 빛을 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며 6000선 안착 과정 상승 지속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3월 중국 양회와 미국 2월 고용보고서 발표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 매물 봇물... 한 달 새 30%↑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꺾여 강남·용산 2년 만에 하락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한 달 사이 약 30% 가까이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상급지에서 집값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하며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1443건으로, 한 달 전(5만6107건) 대비 27.3% 증가했다. 사실상 한 달 사이 30% 가까이 매물이 늘어난 셈이다.

매물 증가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다주택자의 급매 출회가 지목된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규제 신호를 이어가면서 절세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된 영향이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에도 즉각 반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4주 연속 축소됐다. 특히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등 주요 상급지 4개 구는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 집값이 동반 하락한 것은 약 100주 만이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도 가격 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84㎡는 최근 50억5000만~50억8000만 원대에 거래되며 전고점 대비 5억 원 이상 하락했다. 송파구 가락

동 ‘헬리오시티’ 전용 84㎡ 역시 최고가 대비 약 5억 원 낮은 26억 원 수준으로 호가가 내려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 폭이 더 크다.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08㎡는 최근 호가가 약 5억 원 낮아진 60억 원 초중반대에 형성됐고, 대형 면적의 경우 10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매수자들이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시장 흐름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에서 시작된 하락 흐름은 결국 외곽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매물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 정책 변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이 더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고금리 환경까지 겹치면서 보유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온도차는 존재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강북·도봉·금천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전세 매물 부족과 대출 여건 때문에 당장 하락 전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 달리기 인구 1000만 명 시대

최근 러닝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러닝은 분명한 건강에 이로운 운동이지만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지 않게 무리하면 독이 된다. 특히 반복적 미세 충격 누적으로 발생할 경우 피로골절 심해지면 걷는 것조차 힘든 통증을 유발한다.

피로골절은 반복적인 미세한 충격이 뼈에 누적되면서 발생하는데 특별한 외부 충격 없이 실금이나 미세한 골절이 생기

반복적 미세 충격 누적엔 피로골절로 지독한 통증

는 상태다. 대부분 체중 부하가 가장 많은 하체를 지지하는 뼈에 발생하기 쉽다. 대표적으로 발바닥·발뒤꿈치·발목·무릎·정강이 뼈 부위 등이다. 초기에는 경미한 통증이 운동 중에만



지난달 22일 열린 '2026 대구마라톤'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당신의 다리는 안전한가요

무리하게 뛰면 오히려 毒 최소 10분 반드시 준비운동

발생하므로 방지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누적되어 피로골절이 발생하고 통증이 심해지고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움직임을 제한적으로 둔해지고 통증으로 인해 걷기조차 힘들어지게 된다.

피로골절은 전문의 진료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골절선이 희미하기 때문에 X-레이 검사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골절선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골수 부종, 골 손상 등을 진단하게 된다.

이희성 울산엘리아병원 관절척추센터 과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단순 통증을

가볍게 여기고 피로골절을 계속 방치하면 실금 수준이 아닌 뼈가 완전히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경미한 통증이라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 등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이 지연되거나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건강한 러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주어 부상을 예방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최소한 10분 이상은 가벼운 달리기나 제자리 뛰기 등으로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

허승아 기자heosa@skyedaily.com

사람 중심 휴먼브랜딩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e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

